

## 현시점에서 '26년 아파트 입주물량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연합뉴스, 8.21) >

◆ 신축 더 오를까 ...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올해 대비 71%↓

□ 해당 보도는 민간업체가 조사한 입주물량을 인용하고 있으나, 해당 업체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민간 아파트 단지만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아파트 입주 추정치를 게재하고 있습니다.

○ 다만, 해당 추정치에는 '26년 입주가능 단지 중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거나, 후분양 예정 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 '26년 물량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[참고] 해당 업체는 '24.상반기 서울 입주를 0.6만호로 추산했었으나, 실제 실적은 1.4만호

□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시기를 대폭 앞당기고,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5만호가 '26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되도록 하는 등

○ 지난 8.8일 발표한 「주택공급 확대방안」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공급불안 우려를 해소하고, '26년 이후에도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| 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국토교통부 | 책임자 | 과 장 | 한성수 | (044-201-3317) |
|      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서지훈 | (044-201-3325) |